

전원경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기(1851-70)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경제 상황이 호황을 달리고 있던 때였다. 이웃한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재위 63년(1837-1901)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18세기부터 시작되었던 산업 혁명의 결실이 맺어진 시기였으며, 과학과 산업의 발전은 영국과 영국인들에게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한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1819년에 영국의 증기선이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너갔고, 1830년에 맨체스터와 리버풀 사이 철도가 가설되었으며, 상업 철도의 건설로 인해 철도역마다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났다. 1851년에는 세계 최초의 만국박람회가 런던에서 열리고 1863년에는 지하철이 개통되었다.

훗날 나폴레옹 3세가 된 루이 나폴레옹(재위 1852-1870)은 조세핀이 첫 결혼에서 얻은 딸 오르탕스 드 보아르네와 나폴레옹 1세의 동생 루이 사이의 아들이었다. 그는 1848년 2월 혁명으로 입헌군주정이 무너진 프랑스에서 실시된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는 대통령을 4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1851년 쿠데타를 일으켜 헌법을 개정하고 스스로를 '나폴레옹 3세'로 추대했다. 얼마뒤에 프랑스는 다시 '황제 나폴레옹'을 맞아들이게 되었다. 자신의 집권 기간에 맞추어 세계 경제가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나폴레옹 3세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1856년에 사실상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었던 크림전쟁이 영-프 동맹의 승리로 끝났고 1860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간 자유 무역 조약이 체결되었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여성들의 삶의 방식도 달라졌다. 19세기 초까지 여성들에게 주어진 삶은 집안에서 신부 수업을 받고 결혼해서 되도록 많은 아이를 낳는 길밖에

전원경

(예술 전문 작가·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시티대학교 런던(City University London)에서 예술비평 전공으로 석사를, 글라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에서 문화컨텐츠산업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월간 『객석』, 『주간동아』 기자로 일했으며 예술 3부작 시리즈인 『예술, 역사를 만들다』, 『예술, 도시를 만나다』, 『예술, 인간을 말하다』를 비롯해서 『페르메이르』, 『클림트』, 『런던 미술관 산책』 등 예술과 문화사에 관련된 11권의 책을 썼다.

없었다. 그러나 산업 혁명과 이어지는 도시화를 틈타 19세기 중반부터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파리와 런던 같은 대도시로 나오게 된다. 도시로 온 시골 여성들이 종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직업은 세탁부였다. 세탁부들이 공동 빨래터에서 빨래를 해 오면 표백부들이 석탄을 채운 난로 위에 무쇠 다리미를 얹어서 달궈진 다리미로 옷을 다렸다. 세탁부보다 좀 나은 일로는 하녀, 양장점, 모자점, 꽃가게의 판매원, 수를 놓거나 바느질하는 여자, 직물공 등이 있었다. 공장에서도 일해도 여자는 남자의 반밖에 급료를 받지 못했다.

르누아르의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는 가로 131센티미터, 세로 175센티미터로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큰 사이즈의 작품이다. 커다란 캔버스 가득히 조명과 햇빛 아래에서 춤추거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다시 오지 않을 젊음의 한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전해주는 작품이다. 그림의 주요 여자 모델인 잔느, 에스텔, 마고는 모두 10대 후반의 소녀들로 몽마르트르에서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처녀들이었다. 그림 맨 왼편에서 르누아르의 친구와 춤추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마고는 이 그림이 그려진 지 2년 후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림 속에서는 행복하게 웃고 있지만, 그림의 실제 모델들의 삶은 대부분 곤궁했다. 몽마르트르에서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처녀들의 삶은 매우 빈한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생계를 위해 매춘을 하기도 했다.

르누아르는 몽마르트르에 만연한 빈곤, 그리고 앞날이 불투명한 젊은이들의 암담한 미래를 외면하려 했던 것일까? 르누아르 본인도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를 그릴 30대 중반까지 가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가난과 불안을 애써 외면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예술에서만이라도 현실의 고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파리는 급격한 산업화로 과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다. 정치적 혼돈과 경제적 곤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던 젊은이들을 그림 속에서나마 행복하게 묘사하려 했던 것이 르누아르의 의도였다.

파리의 낭만적 보헤미안들

이런 점에서 르누아르의 낭만주의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의 등장인물들과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 오페라의 내용은 철저히 낭만적으로, 이로부터 4년 후 작곡된 《토스카》와는 완전히 맥을 달리하는 작품이다. 《라 보엠》이 초연될 당시 이탈리아 오페라의 경향은 베리سم오, 즉 사실주의에 치중하고 있었다.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처럼 무대에서 살인과 증오와 결투가 난무했고, 이런 경향이 더 극대화될수록 극과 음악은 드라마틱하게 변화해 갔다. 그러나 《라 보엠》은 그런 베리سم오 오페라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철저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작품이다.

《라 보엠》의 주인공들은 다락방에 사는 젊은 예술가들이다. 이들은 불을 땔 땔감이 없자 시를 쓴 원고지를 태워 잠시나마 손을 녹이고, 곤궁한 와중에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카페로 향한다. 로돌포와 미미가 처음 만난 순간, 미미가 들려주는 아리아 <내 이름은 미미>의 가사는 그녀의 현실적인 처지가 어떤지를 알려준다. 미미는 “별이 보이는 작은 방에서 혼자 살며 장미와 백합을 수놓는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의 처녀들처럼 산동네나 건물의 꼭대기 다락방에서 수놓는 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연의 일치처럼, 《라 보엠》의 남자 등장인물인 로돌포, 마르첼로, 콜리네는 각기 시인, 화가, 철학자인데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에 등장하는 르누아르의 친구들 역시 작가이거나 화가, 철학자였다.

섬광처럼 서로에게 사랑을 느낀 로돌포와 미미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파리의 거리에서 싸구려 모자를 사며 보석 반지라도 얻은 듯 기뻐한다. 이들은 모두 현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현실의 곤궁함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결핵에 걸린 미미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로돌포의 다락방에서 운명을 달리한다. 하지만 숨진 미미의 얼굴을 보며 로돌포는 오히려 "혈색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늘 현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어찌 보면 철없기 짝이 없는 이 순진한 낭만주의자 청년과 그를 사랑하는 처녀 미미의 모습은 르누아르의 그림 속 남녀들과 신기할 정도로 엇비슷하다.

물랭 드 라 갈레트를 그린 다른 화가들의 작품은 르누아르의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처럼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르누아르의 그림이 그려진 지 불과 10년 후인 1886년에 반 고흐가 그린 <물랭 드 라 갈레트>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풍차를 지고 있는, 공허한 카페의 모습을 담고 있다. 표정 없는 몇몇 젊은이들이 물랭 드 라 갈레트 앞을 오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울하고 싸늘하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 출신의 젊은 화가 피카소가 파리에 와서 경험한 물랭 드 라 갈레트는 노골적으로 매춘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음습한 댄스 홀이다.

일시
2025 년 11 월 18 일(화)
오전 10 시 30 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 녹음할 수 없습니다.